

# 오피니언

## 월/요/광/장

박상호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며 나름대로 가정교육을 한다. 그런데 요즘 시간에 쫓기는 젊은 부부들은 자녀교육을 가정에서 책임지려고 애쓰기보다는 유치원과 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자녀교육의 기저에는 '조화의 화(和)의 정신이 있다. 생존을 위한 조화의 정신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세를 취한다. 또한 조화를 위해

열매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식의 근본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고, 부모에게 부여한 가장 큰 의무는 자녀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께 맡긴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닦도록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자녀교육의 결과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한 번쯤은 내가 자녀교육을 바르게 하였는지,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교육의 우선 순위는 영성교육, 감성교육, 지식교육 순이다. 이 수순을 따르지 않는 교육은 사상누각과도 같다. 지적능력 향상 중심교육으로 성장된 자녀는 비판적이고 독선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지식은 어떤 자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축적 이전에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의 인격이 더 중요한 요소를 명심해야 한다. 인격의 변화는 지식을 축적해간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감성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으나 절대자 앞에서 이루어지는 영성교육은 강력한 인격적인 변화, 인격의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이타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고 겸손한 자로서 진정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자가 된다.

당신은 인격적으로 변화된 자식으로부터 존경한다는 고백을 들어보았는가. 자식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부모로 인하여 행복하다는 고백을 들어보았는가. 우리의 자식을 이런 자식으로 교육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선대 미래 교육>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녀교육 '人格'이 먼저다

일본의 경우 자녀교육의 기저에는 '조화의 화(和)의 정신이 있다. 생존을 위한 조화의 정신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각도 기꺼이 포기하는 자세를 취한다. 또한 조화를 위해

서는 '이찌닌마에(一人前)' 곧 '자기 몫을 다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다. 따라서 자기 몫을 다하지 못한 자는 사회의 조화를 무너뜨리는 공동의 적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본의 부모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자기 몫을 담당하게 감당해 낼 수 있는 독립심과 자립심이 확고한 당당한 자녀로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처음에는 우상을 삼가듯 모든 것을 다 바쳐 키우다가 자식이 다 크고 나면 자식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는 노인이 되어 갈수록 이제는 자식을 버거게 짐으로 취급되는 자신들을 바라보며 배신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린다.

## 법조칼럼

이은강



1년여 전 엿된 티를 채 벗지 못한 17살의 소년이 수갑을 찬 채 검사실에 들어섰다. 상습절도! 많지 않은 나이에 벌써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 내가 어떻게 다른 애들과 똑같이 살 수 있었어요"라고.

제이다. 그래서 아직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접하는 환경에 따라 쉽게 비행에 몰리기 쉽다. 특히 비행에 저지르는 소년들의 주변 환경은 대부분 몹시 열악해서 정성어린 마음으로 이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치료료를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법체계와는 구별되는 소년사법체계를 갖추어 놓고 소년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위주로 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

## 어느 비행 소년의 눈물

것인지 생각은 해봤느냐. 할머니라도 곁에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못했느냐"라고.

서 최초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도입한 이래 '보호관찰 선도부 기소유예' 등 비행 소년을 보호, 선도하여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부모의 사랑 속에 살아야 할 소년이 어린 나이에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벌써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느끼는 모습에 필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필자는 그때 그 소년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 통상의 재판절차에 넘기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보내는 결정을 했다. 필자는 그 소년이 검사실에 다시 찾아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소년이 흘렸던 눈물이 진실한 후회와 반성의 눈물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그 소년에 대해 다시 말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만큼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도 크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테고, 내가 지금처럼 살면 그 자식도 너와 똑같은 원망을 너에게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라고.

일선 검사로서 소년사건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직 어린 나이에 사회에 대한 적개심과 피해의식을 가진 소년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 그 소년처럼 진심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면 적정한 선도와 보호를 통하여 얼마든지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때 그 소년이 소리 없이 흘렸던 눈물이야말로 검사로서 정말 보고 싶은 귀한 눈물이 아닐까.

그 소년은 그 뒤 어떤 생각을 했는지 조사를 받는 내내 눈물을 적셨고, 조사가 끝난 후 "제가 교도소에 나오면 꼭 찾아와서 인사드릴게요"라고 인사를 하며 돌아갔다. 소년은 가치관과 자기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의 인격

검찰에서도 지난 1978년 광주지검에

## 리틀맘 취업·육아비용 등 정부가 지원해 줘야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필자가 아는 사람 중에 19살의 나이에 17개월 된 딸을 둔 리틀맘(미혼모)이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가솔을 거둬들인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다가 주변의 반대와 질책에도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것이다.

키기 위해 낙태와 입양 대신 부모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주위의 격정과 비난의 시선보다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경제적 어려움이다.

이 같은 리틀맘(미혼모)과 리틀파파가 국내에만 6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

한순간의 실수였지만 실수를 깨닫고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린 엄마, 아빠들은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절실하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 교육과 취업, 육아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겠다. ▲송은숙·광주시 북구 풍향동

## 기고

한장희



설 명절이 지났다. 설날 그날날 우리는 지난해의 갈등과 섭섭함을 모두 잊고 새해를 밝게 맞이하자고 약속한다. 하지만 잘 실현되지 않는 바람이다.

라는 더 큰 절망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매곡동 이마트 출점을 저지한다고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광주는 이미 대형마트 포화상태이다. 한 두 개 더 들어온다고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단계는 넘어섰다.

이마트의 광주 매곡동 출점과 관련된 갈등도 해를 넘겨 지속될 것 같다. 이마트는 출점을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지역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출점 철회를 관철 시키겠다고. 상생의 해결 또는 최소한 지금보다 더 나은 해결 방안은 없을까.

미국인 슈퍼마켓은 규모와 상품구색에서 우리나라 대형마트와 유사하다. 처음 슈퍼마켓이 도입되었을 때 미국의 중소상인들은 시위와 법률계정을 통해 확산을 저지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러나 흐름을 되돌리는데 실패했다. 자동차와 병창도 보급 및 주거지역의

출점 자체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는 한 타협점 찾기는 어렵다. 이마트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적법절차에 따른 영업의 자유를 강조한다. 상대편은

## 대형마트 출점의 갈등 해법

중소상인의 생존권 확보와 대기업의 횡포 방지를 우선한다. 비교하기 어려운 기준을 놓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니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을 더 선호하게 됐다.

선택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은 얼마일까. 이마트의 고용 창출이나 지역 상품 판로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얻는 효과를 짚 수 있을까. 지역 상인들의 피해 규모는 추정 가능한가. 이 수치들을 계산하더라도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지역 상인의 피해에 더 큰 비중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없을까. 사실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일은 어렵다. 더 어려운 일은 이 문제가 사회정의라는 추상적 가치관에 연결된다는 점이다.

중소상인들은 이마트 점포 하나의 출점을 저지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장사는 소비자의 사랑을 얻는 일이다. 멋진 점포의 출점을 막는 방법으로 사랑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 멋진 점포를 만들어야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마트 출점을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기업 생존권 사이의 갈등문제로 파악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의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처럼 공산품을 더 작은 단위로 근거리에서 판매하는 방식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렵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SSM과 대형마트 출점을 막으면 연쇄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 진출할 것이다. 늘어나는 맞팔이 부부 주민들이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대형마트가 인근에 있다면 개발한 상품을 더 쉽게 가공 판매할 수 있다. 경쟁자에게 배우고 경쟁자를 활용해 더 강해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방식으로 냉철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이마트 출점을 소비자 선택권과 중소기업 생존권 사이의 갈등문제로 파악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의 판단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이마트가 출점하려는 지역은 교통이 번잡한 곳이다. 바로 근처에 학교도 있다. 주변의 교통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또한 학생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신 행정당국은 이마트에게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매곡동 이마트 출점은 법적인 문제로 풀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출점을 허용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이마트가 때문에 초법적인 규제를 가하거나 더 불리한 법률적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 법지주의

<전남대 경영대학 교수>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시설

### 설 민심, 지역 정치권 아프게 새겨야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확인한 '설 민심'은 구제역 우려와 조류인플루엔자(AI) 만연에 따른 농민들의 위기감, 천정부지의 물가와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고가 주류를 이뤘다.

8%와 61.2%로 타 시·도와 비교, 최하 위권이다.

당장 구제역이 발병의 불일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닷새간의 명절 연휴마저 겹쳐 불안감이 휩싸인 지자체와 축산농의 엄연한 현실을 정치인들은 눈으로 확인했다. 성난 농심도 의면하지 못했다. 쌀이 남아돌고 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니 가격은 최악의 수준이다. 폭설과 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해 과수와 채소 농사를 망친 지역도 있다.

유류와 채소·과일류 등 물가 폭등은 서민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가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당장 구제역이 발병의 불일데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닷새간의 명절 연휴마저 겹쳐 불안감이 휩싸인 지자체와 축산농의 엄연한 현실을 정치인들은 눈으로 확인했다. 성난 농심도 의면하지 못했다. 쌀이 남아돌고 있지만 정부가 방치하고 있으니 가격은 최악의 수준이다. 폭설과 한파 등 기상변화로 인해 과수와 채소 농사를 망친 지역도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무능력과 무대책에 대한 질책도 아프게 들었을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로 날아간 F1 대회와 2012여수박람회 관련 예산, 과학벨트 유치와 구 전남도청 별관문제, 공항 이전에 대한 무관심 등 한마디로 지적투성이다.

## 일부 지자체 지방언론 개혁 바람 확산돼야

그동안 난립 등으로 인해 어지러워진 지방언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한국 ABC협회의 신문 발행부수 공개를 계기로 발행부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언론사의 경우 행정광고 중지 및 출입 금지 등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또 사실왜곡, 허위과장 보도를 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요구하는 기자도 출입을 금지하고 광고를 주지 않기로 했다.

사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영세 신문사가 연명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광고 및 공고 덕분이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경남 양산시 '시정 취재 언론사 출입 및 운영 기준'을 만든 이후 경기도 성남시와 안산시, 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잇따라 뒤를 따르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방언론사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타지역에 비해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특정 지방언론에 공고를 했다가 타 언론사의 보복이 무서워 아예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우리는 일부 지자체의 이런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시장법칙을 무시한 광고의 나부덕기식 배정이 지방언론 난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인력과 시설, 발행부수 등이 언론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역 일선 시·군도 일부 지자체의 지방언론 개혁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몇 백부, 몇 천부 발행하는 신문사와 수만 명의 유료독자를 가진 신문사를 똑같이 대우할 것인가.

우리는 일부 지자체의 이런 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시장법칙을 무시한 광고의 나부덕기식 배정이 지방언론 난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인력과 시설, 발행부수 등이 언론

물론 지자체의 언론 개혁이 지방언론 '갈등이기'수단으로 왜곡돼선 절대 안 된다.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 언론사의 뼈를 깎는 자성과 자정노력도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 無等鼓

해마다 수천만 명의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는 설은 추석과 더불어 민족의 최대 명절이다. 전통 세시풍속 대부분이 설과 정월 대보름 사이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보면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지 감시하기도 했다.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설을 양력과 음력으로 두 번 쇠는 관행이 횡행했다. 이른바 '이중과세(二重過歲)'다.

전설 보면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것은 우리 이어온 민족의 큰 잔치였지만, 그 상징성 탓인지 근대 이후 다른 명절에 비해 유독 많은 시련을 겪었다. 개화기와 일제시대는 물론 광복 이후에도 술한 흉대를 당했다.

현세의 설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85년이었지만 명칭은 '민속의 날'이었다.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것은 1989년이었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개화기와 일제시대는 물론 광복 이후에도 술한 흉대를 당했다.

그 시작은 태양력의 도입이었다. 1895년 을미개혁으로 양력설이 도입된 이후 일제는 우리 '설'을 '구정(舊正)'이라 깎아내리며 일본 설인 '신정(新正)'을 쇠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양력으로

지정됐다. 전통 설날이 세 위상을 찾은 것은 불과 20여 년 전부터인 셈이다.

이승만 정권은 1월 1일부터 사흘간을 공휴일로 지정해 양력설을 쇠 것을 장려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음력설은 인정받지 못했다. 시대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음력 설날 공무원이 정시에 출퇴근하는지, 근무 중 자리를 뜨지는 않는

권위주의 시절 이중과세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하지만 설이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명절로 자리 잡은 지금, 두 번 햇맞이를 하는 것 자체가 설을 쇠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승만 정권은 1월 1일부터 사흘간을 공휴일로 지정해 양력설을 쇠 것을 장려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음력설은 인정받지 못했다. 시대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음력 설날 공무원이 정시에 출퇴근하는지, 근무 중 자리를 뜨지는 않는

마음 약한 범인(凡人)들에게는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닐 성싶다.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됐지만 새로운 각오를 다질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마음처럼 간사한 것은 없다'지만 다시 한 번 단단히 작심(作心)하고 새 목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康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경부 2200-612	사건팀 2200-693	다자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조선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